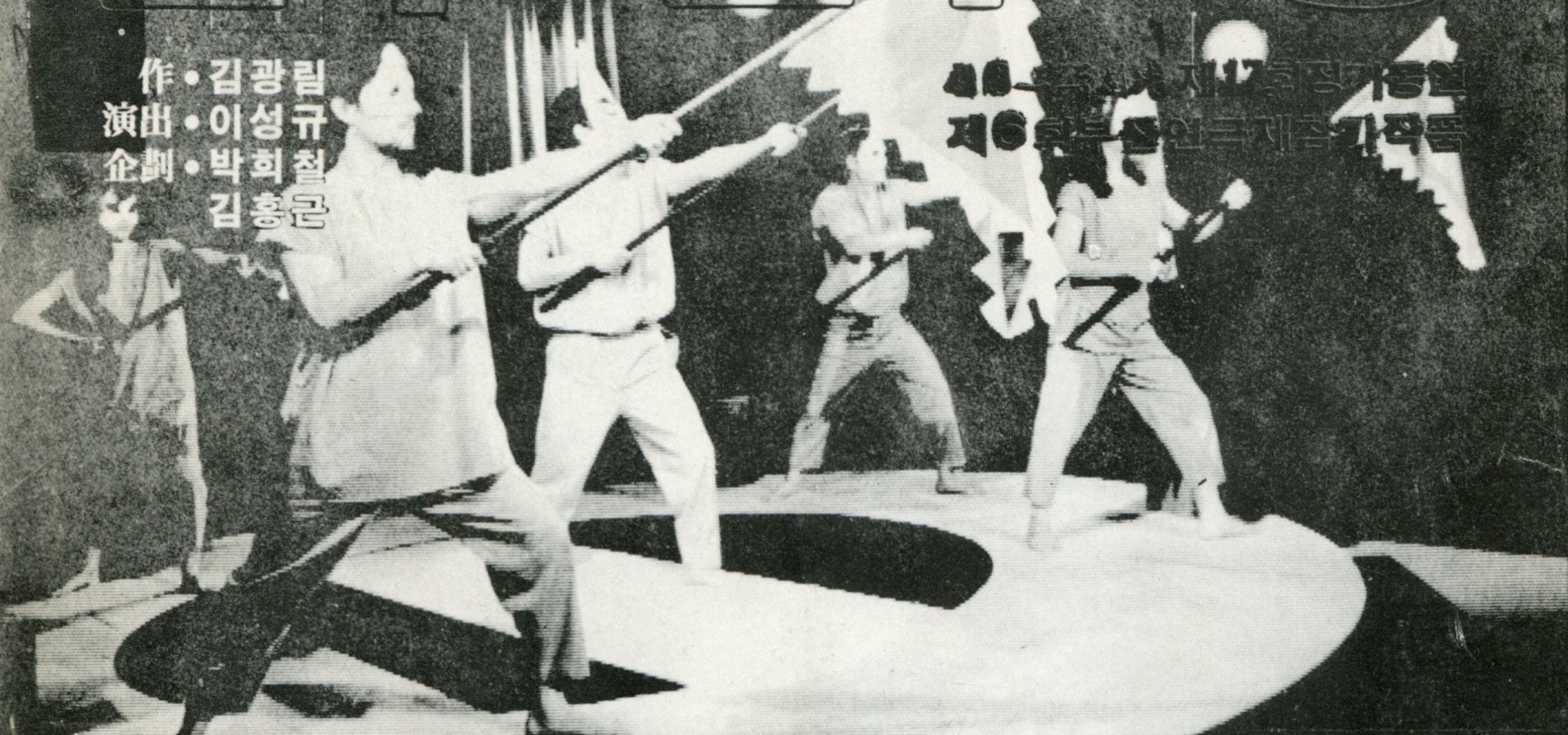


달·라·진·저·승

作·김광림
 演出·이성규
 企劃·박희철
 김홍균

48-부속·제17층·정기공연
 제6회·부속·연극·제작·작품



저승에서 “태평천국의 흥망”을 공연하는 도중 생긴 일들

달·라·진·저·승

3月 29, 30, 31

(3일간 5:30, 7:30)

우리는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며
 공권력의 횡포를 고발한다

시민회관소극장

◎ 나오는 사람들 / 송성엽 · 박찬영 · 허대영 · 김하균 · 박지일 · 김미경 · 김지영 · 김남옥 · 김홍균

劇團 부두劇場 제6회 부산연극제참가작품
제17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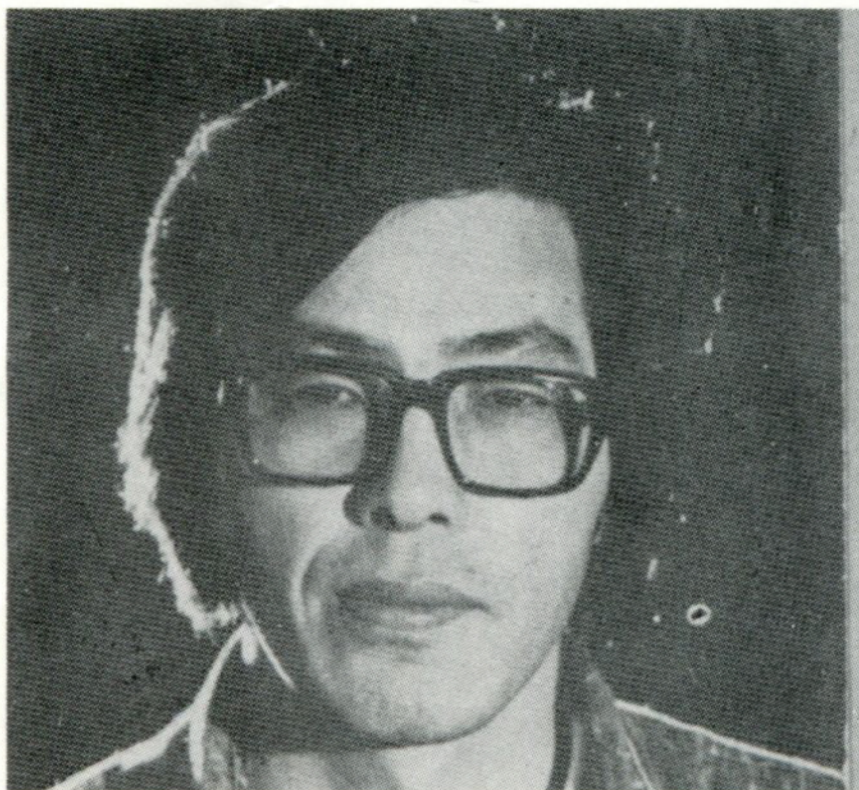
“달라진 저승”

'88. 3. 29-31 5:30/7:30

시민회관 소극장

김광림 작 / 이성규 연출 / 박희철 기획

대표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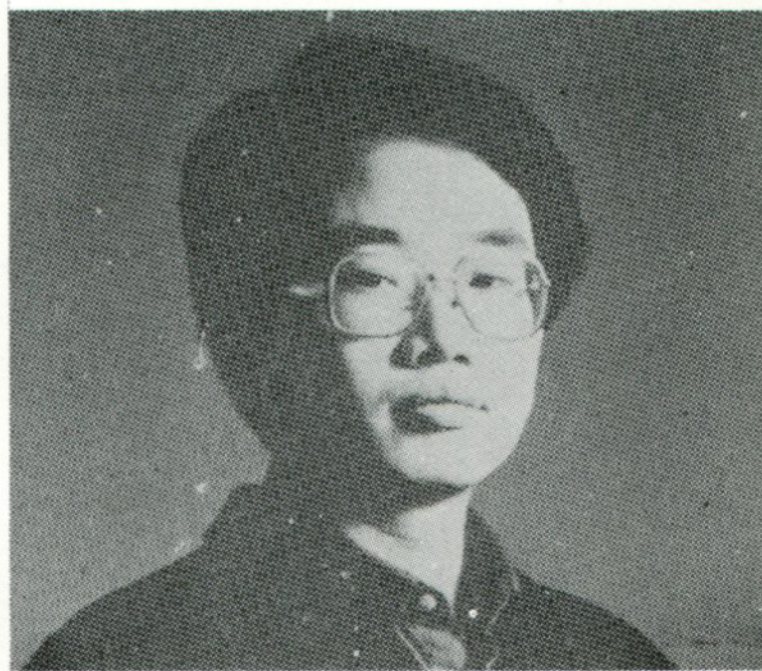
새봄을 맞이하여 저희 부두극단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연극제를 맞이해서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소극장 개관에 대한 기대와 후원, 공연작품에 대한 매운 비판과 격려는 항상 큰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달라진 부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년전의 만남을 소중히 해주었고 작품의 개작을 허락해준 김광림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연출 /
이 성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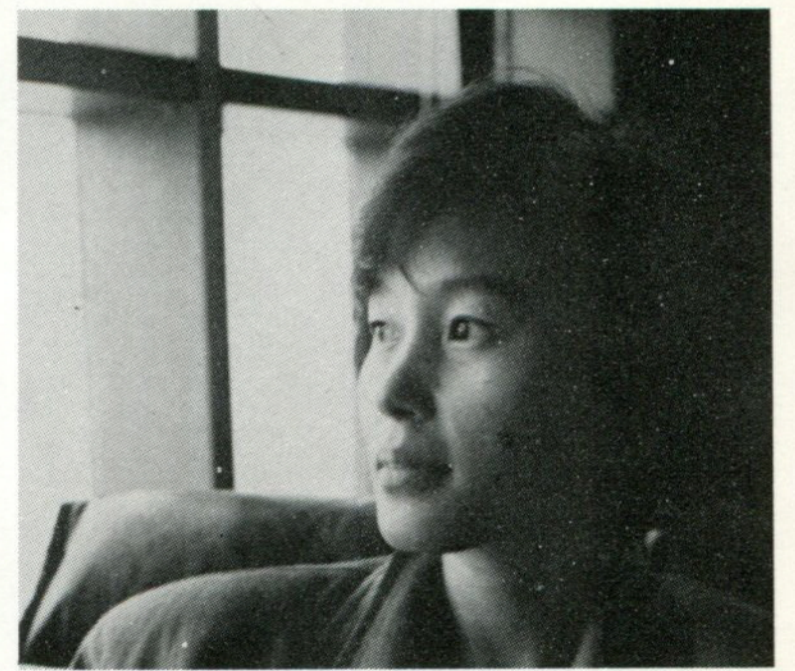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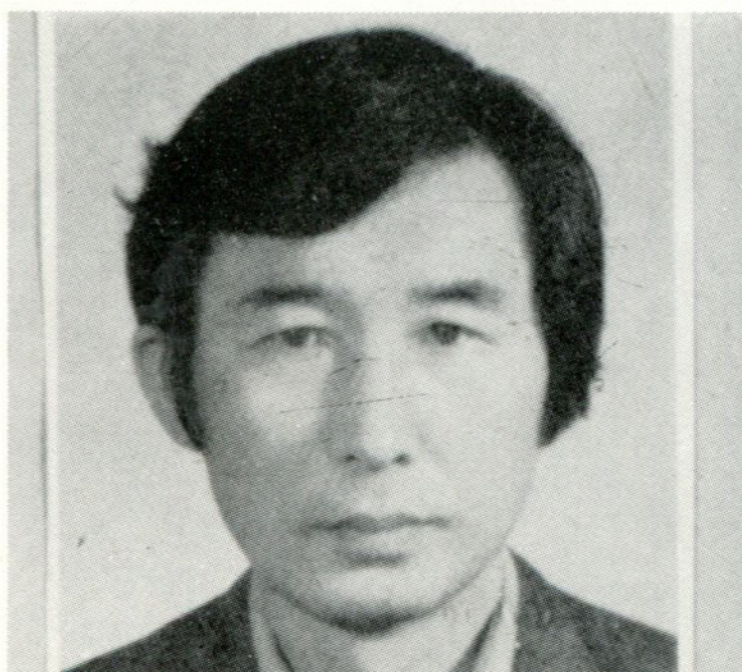
기획 / 박 희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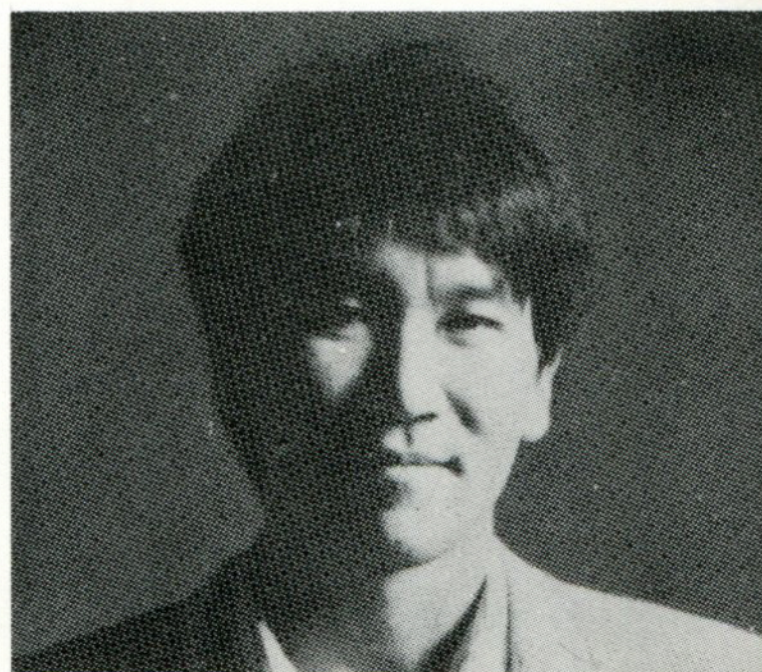
무대감독 / 김 홍 근



안무 / 조 인 애



조명 / 김 인 환



미술·소품 / 이 상 영



의상 / 이 해 옥

작가이야기



김 광림

부두극장의 이성규 형과는 1973년 부산대학에서 열렸던 제1회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만났던 사이이다. 이제 15년후 '달라진 저승'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흔히 연극을 '본다'라고 말한다. 극장(Theatre)이라는 말이 희랍어의 '보는곳'(Theatron)에서 왔음을 상기하더라도 연극은 보는 예술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본다는것이 꼭 눈으로 보는것만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에서 우리는 본다라는 말을 매우 광범위하게 쓰고있다. 가본다, 들어본다, 느껴본다, 생각해본다... 이 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본다라는 말의 영역은 연극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달라진 저승'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보는 연극이다.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미학적...등 제영역에 의존하거나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연극이야말로 가장 '연극적'인 연극이며 '보는연극'이 바로 그러한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달라진 저승'은 이 시대에 팽배한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 몇가지 폭력의 형태를 보여줄 뿐, 어느 한쪽 편에 선다거나 또는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극장이 이데올로기의 토론장이거나 도덕강의실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기존의 도덕과 이념을 앞질러간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곡하지않고 보여준다는 점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극중극 '태평천국의 홍망'은 수시로 방해되고 '달라진 저승' 자체도 종종 중단된다. 극중극을 깨는 이유는 배우와 관객이 극중극의 의미—혁명에 대한 환상—에 대해 그들이 연극보다 앞질러가며 편견을 갖게되는 일을 막자는 것이며 극 자체를 깨는 이유는 관객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과 이곳은 극장이라는 현실을 확인케하자는 것이다. 관객들이 마치 세상일을 구경하듯 이 연극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 연극이 관객들에게 도덕성과 입장을 강요하지않은 볼거리(Spectacle)를 제공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공연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극단 부두가 이번 연극제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단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안무를 맡고나서.....

조 인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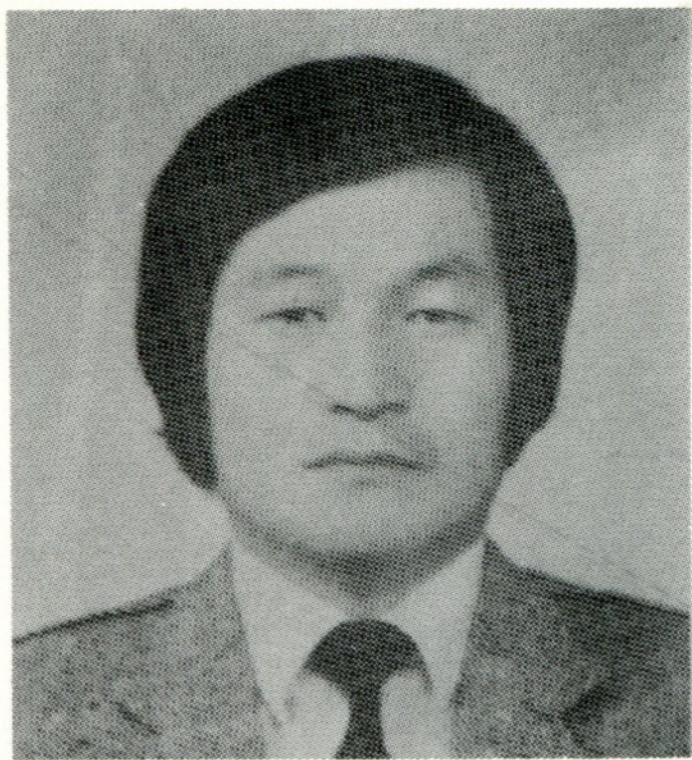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다. 연극과 무용의 접합이란 생각보다 힘들었고 환절기인 요즘 계절처럼 상당히 고통스러운 심신들...

안무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부분들을 함께 모아 작품전체를 한편의 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성격으로 인해 전체형식을 포착한다는것은 안무작업에 있어 어려운 것이었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작품구성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배우자신들의 감정표현에 치우친 움직임과 나의 안무적 창작에 대해 약간의 절제와 절충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그들의 굳어버린 신체를 일정한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신체 기교 즉, 무용적 동작의 이해나 그 사용법을 간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고, 나또한 연극적 안무에 필요한 연극의 구성법에 대해서 작은 지식이라도 가지려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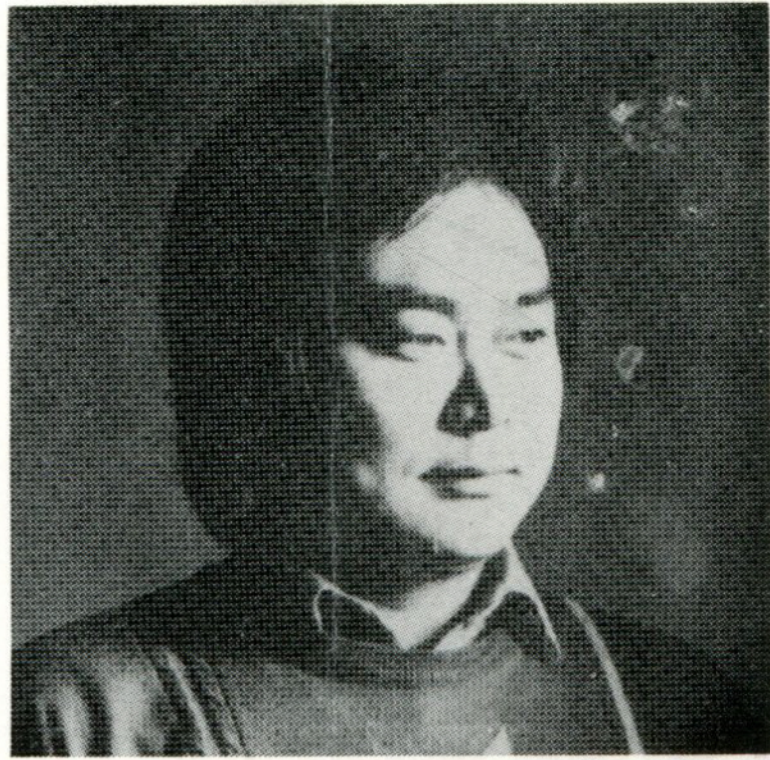
이것으로 인해 배우들과 나의 노력은 작품 전체의 통일성, 움직임을 미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미흡하나마 나의 창작적 안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배우님들과 이제껏 잠들어 있던 나의 의식을 깨워주신 연출가 이 성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CAST

극단 부두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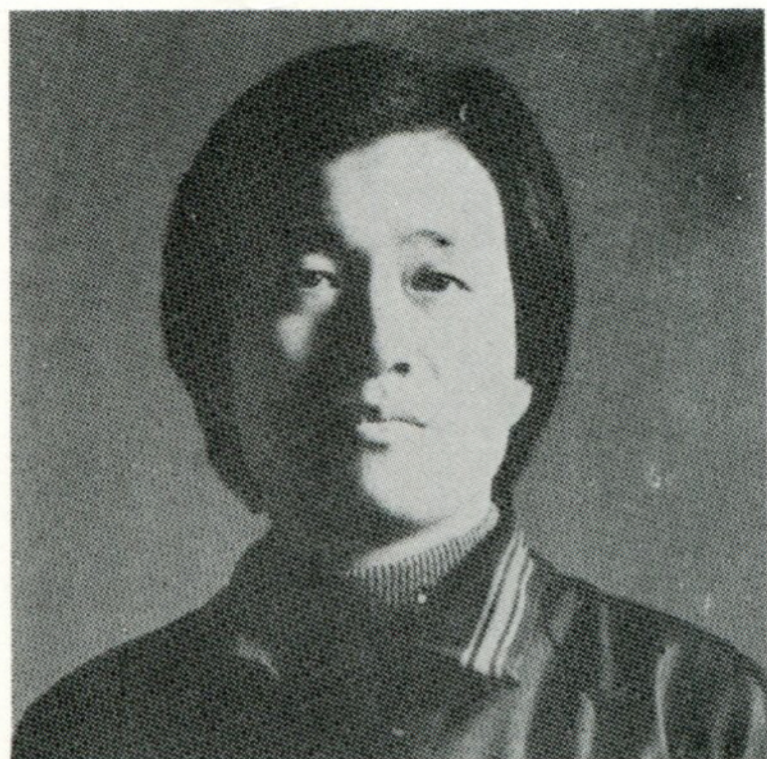
홍수전 / 송 성 엽



홍수전 / 박 찬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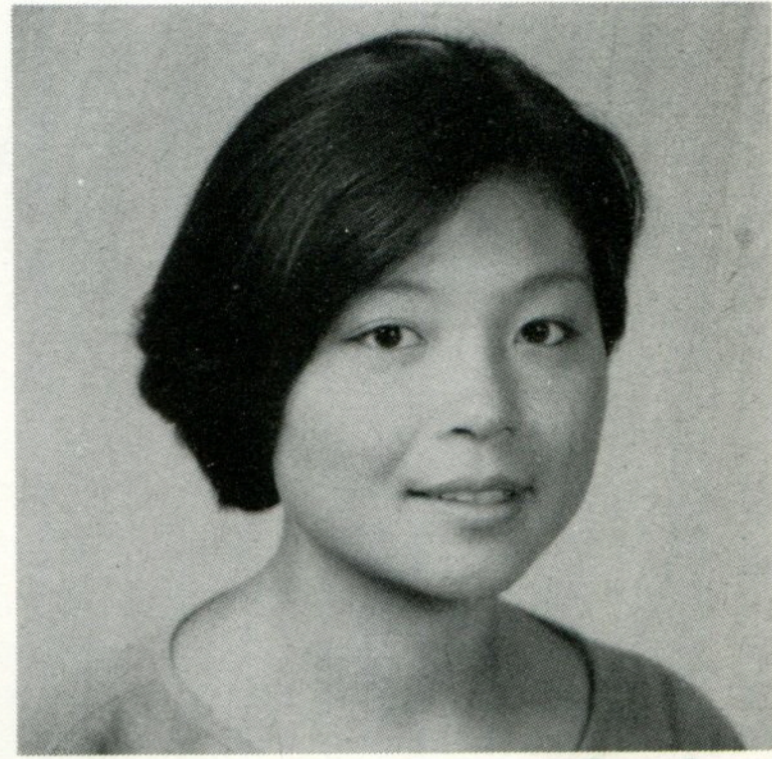
연출가 / 허 대 영



저승사자 / 김 하 균



사내 / 박 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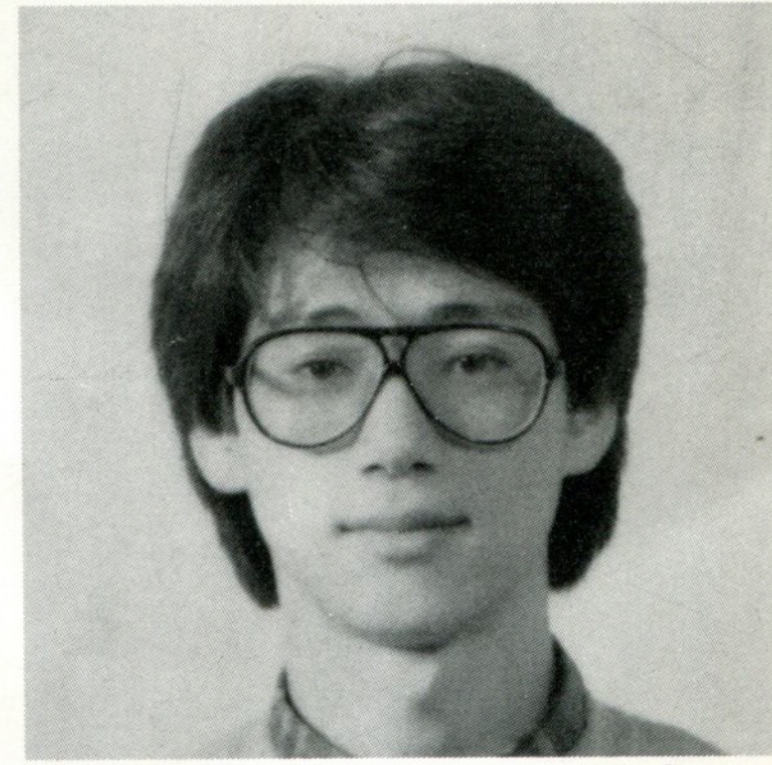
여인 / 김 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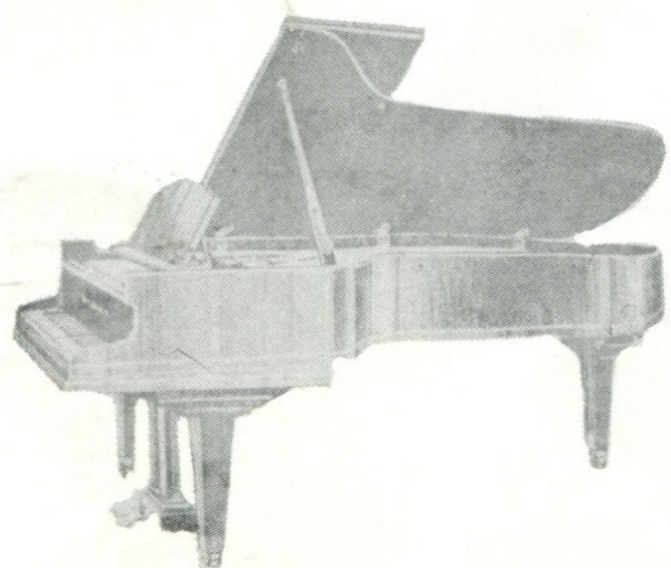
소녀 / 김 지 영



소녀 / 김 남 옥



청년 / 김 홍 규



🌸 공연을 축하합니다 🌸

김경리 피아노 아카데미

원장 / 김 경 리

〒 602-022 부산시 서구 남부민 2 동 463-1 Tel. 256-5146 42-3783

해석과 표현의 방향

1. 무대는 저승으로 비유된 지금의 이곳

겉으로는 달라진듯 보이나, 피부밑을 흐르는 피는 썩어가고 있는, 전체주의적 지배체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곳 이 연극의 무대는 저승이다.

저승사자(=이 작품의 제작자)는 저승인들의 불만을 순화하고 신입저승인들(=관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극공연을 지시한다. 저승사자에 의하면 지금의 저승은 이전과 같은 무시무시한 저승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이 있는 달라진 저승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승은 저승인들의 복리후생은 물론 문화활동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문으로부터 이 연극은 달라진 저승의 내부를 비춰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의 질곡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의 소산임이 곧 밝혀진다. 그것은 이제 저승의 상황이 강압적 통제수단만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2. 폐쇄적 사회에서의 예술의 위상

물리적 통제와 사전 각본심사 등 교활한 문화정책이 도사리고 있는 폐쇄적 사회에서의 예술의 위상은 어떠한가? 지배체제가 관제·어용예술을 육성하고 그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 등 대중조작기능을 장악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퇴폐적, 현실매몰적 상업예술을 권장하고 나면 사회구성원은 허위허식에 사로잡혀 진실의 표면에 부유하게 된다.

여기에 참다운 예술가의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좌절되고 왜곡된 대중의 의식에 정당한 역사성과 현실인식을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허위허식의 투망을 찢어내고 일그러진 민중의 얼굴을 복원해 낼 것인가?

그러나 억압적 상황에서는 항상 물리적 박해가 따르므로 예술가의 표현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이 작품은 이 시대에 있어서의 예술의 의미, 우리의 고민과 패배주의적 의식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3. 태평천국의 흥망은 역사에서 알레고리를 구한 간접화법

역사란 현재와 단절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에 맞물려 살아숨쉬는 동력이다. 태평천국의 난은 핍박받던 민중이 호혜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일으킨 난으로써 세계사속에 살아있는 역사의 순환인 것이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흥망은 배우들의 의식속에 살아있는 잠재된 의식의 표현으로,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과 그 좌절을 언저리에서 지켜보았던 우리 극단원의 염원과 답답함이 깃든 몸짓으로 표현된다.

4. 연극집단 또는 소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의식의 문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의식의 혁명은 역사적 큰 흐름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나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집약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반성의 계기를 던져준다. 우리들의 연극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과연 정당한가?

극단 대표의 독선과 권위주의, 연출자의 폐쇄적 이기주의, 주관주의는 연극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는가? 배우들의 연극에 대한 태도는 과연 진지하고 절실한가? 아부와 타협, 과격한 행동과 성급한 기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뒤바꿔 놓지는 않았는지? 고양된 의식의 상승과 단합된 힘만이 진정한 예술의 주체임을 우리는 가까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5. 혁명의 내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

홍수전의 난은 새세상을 열려는 백성의 갈망을 정당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혁명을 주도하였던 홍수전의 배경이 고향집의 계급상승의지, 꿈속에 나타난 녀마를 걸친 하느님의 모습, 밀실에서의 음모와 타락 등-부정적인 요소를 비추어 보임으로써 성급한 환상에서 비롯된 경거망동과 사이비교주와도 같은 종교적·주술적 언사로 홍수전을 민중의 지도자에서 한낱 사이비 교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 평등사상과 제폭구민의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던 우리의 동학난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혁명에 대한 환상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의도인데 홍수전을 바라보는 극단원들의 시선도 함께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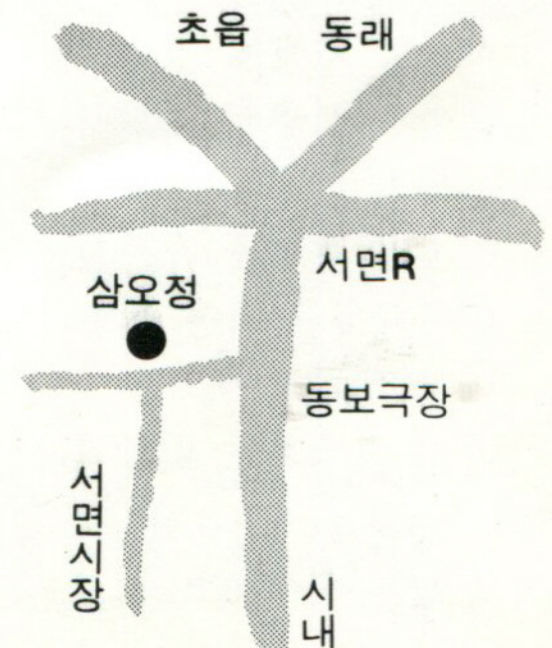
“극단 부두극장의 제17회 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삼 오 정

대표/박기욱

전문한정식, 연회석 완비

T. 2F 806-9540
3F 806-9616



창면개요

A. 1막

1. 프롤로그
 - 중국 청나라시대의 이야기. 암흑기의 시대적 분위기가 묘사된다.
 - 저승사자 개막을 알리고 이곳은 달라진 저승임을 선포한다.
2. 홍수전의 고향집 (1834년)
 - 노동과 피로에 찌든 화전민 집단, 늙은 노모의 계급 상승 의지.
3. 하느님의 모습
 - 매관매직으로 인해 수번의 과거낙방, 고문끝에 실의에 젖은 홍수전. 하느님의 환상을 보다.
 - 하느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연출자와 배우의 해석상의 논쟁
4. 광서성 (1850년)
 - 겹친 흉년과 폭정, 터무니없는 세금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의 모습과 전국각지에 퍼지는 불길한 각종 유언비어.
 - 각본과 달리 공연되는 연극에 당황한 사자의 개입과 연출자와의 대립
5. 사랑의 형식
 - 진정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작자의 시각이 깃들인 즉흥극
6. 연극의 즉흥성에 관한 문제
 - 저승의 현실과 연극내용에 동화된 배우들의 잠재의식은 은연중 즉흥극을 나타내는데…….
7. 홍수전 일어서다.
 - 홍수전 상제회(=비밀결사) 결성, 민중혁명의 지지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천하의 땅, 밥, 옷과 돈을 모두 하느님의 것
8. 음란죄
 - “매춘 사태”를 연상시키는 극중 즉흥 표현에 대한 사자의 편협된 시선과 배우들의 상황에 대한 불만
9. 저승의 규칙
 - 저승은 군대식 통치가 지배하는 사회임이 밝혀지고 사자의 협박에 연출가는 사표를 내려하고 저승의 현실을 관객에게 폭로하려는 여인에게 사자는 채찍을-
10. 인질극
 - 사자의 폭행에 흥분한 과격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리며 저승인들은 규합, 데모사태가 벌어지자 당황한 사자는 타협안을 제시. 이때 연출가 등장하자 사자는 일방적 공연 중단.
11. 단막극
 - 무대뒤 사자의 집합, 소녀는 몰래 빠져나와 백마를 탄 기사를 구하고…감상적인 노래와 해프닝.

B. 2막

12. 태평천국의 융성
 - 주눅들어 입장한 배우들, 음모가 있은듯 혁명의 붉은 기운과 홍수전의 남경 함락. 공연이 잘 진행되어 흐뭇한 사자.
13. 아! 정말 훌륭하구나
 - 혁명의 성공이란- 참혹한 전쟁과 황폐해진 국토를- 새로운 지배체제, 홍수전의 계율과 다시 도탄에 빠지는 민중들의 왜곡된 표현-혁명주체와 민중의 괴리.
14. 태평천국의 위기
 - 밀실정치, 권력상층부의 타락과 암투, 그리고 암살, 양수청은 모반을 피하다 오히려 살해되고.
15. 변질된 사랑의 형식
 - 호랑이 자는곳 토끼가 날뛰다드니, 주역배우를 하려고 서로 싸우는 저승의 배우들. 방탕함 속에 썩어가는 금궁의 밤과 비탄에 젖은 민중
16. 혼란
 - 혁명의 이념을 무화시키려고 음모를 주며 장면삭제를 요구하는 저승사자와 배우들의 의심과 항의
17. 연극의 힘에 관한 논쟁
 - 연출가 등장, 1막끝에 무대뒤에서 린치를 당한 혼적, 이 시대에 있어서의 예술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예술논쟁
18. 암전
 - 흥분한 과격 청년이 조명설비를 부수자 무대는 지옥, 관객의 항의 무마용으로 사자 소녀와 사내에게 아무 노래나 부탁한다.
19. 우리는 어울리는 한쌍-쇼
 -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한, 찰라적 쾌락에 안주하는 우매한 대중의 퇴폐적 저질쇼가 벌어지고
20. 결박된 청년
 - 엉성한 배우들의 혼란을 틈타 사자는 “질서”의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21. 파국
 - 연출가를 파면시키고 일방적으로 공연을 진행시키는 사자, 배우들 대항하나 무기력
22. 연극의 끝
 - 사자의 처단위협속, 계엄령하의 공연, 사자의 강요된 프렘프트속에 홍수전은 죽음을 맞이한다.

